12127 ST OF BIONET

32M18899

뉴스홈 | **최신기사**

美프로야구, WBC 고려 스프링캠프 일정 조정

송고시간 | 2008-09-24 08:47











장현구 기자

美프로야구, WBC 고려 스프링캠프 일정 조정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미국프로야구가 내년 3월 열리는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준비를 위해 스프 링캠프 일정을 예년보다 6일 앞당긴다.

AP통신은 24일(한국시간) 내년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스프링캠프가 2월15일께 시작된다고 전했다. 투수, 포수조는 2 월15일부터 캠프를 열고 야수는 그보다 5일 늦은 2월20일부터 훈련에 참가한다.



메이저리그가 스프링캠프 일정을 앞당긴 이유는 각국 선수들이 WBC를 보다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메이저리그 각 구단과 선수 간 협약에 따르면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출신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2월15일 일단 소속팀 스프링캠 프에 참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찬호(35.LA 다저스), 추신수(26.클리블랜드 인디언 스) 등 WBC 대표팀 합류가 유력시 되는 한국 선수들과 스즈키 이치로(시애틀 매리너스), 후쿠도메 고스케(시카고 컵스), 궈훙 즈(LA 다저스) 등 일본, 대만 선수들은 소속팀 캠프에서 훈련을 시작한 뒤 대표팀 훈련 캠프로 이동한다.

아시아 국가들을 제외한 다른 나라 WBC 선수들은 2월18일까지 캠프에 참가해야 한다. WBC에 참가하지 않는 다른 메이저리거들은 2월23일까지 소속팀 훈련에 합류하면 된다.

메이저리그가 일정을 조정한 것에서 미국의 남다른 각오도 읽을 수 있다. 2년 전 초대 WBC에서 야구 종가를 자부하던 미국이 4강에 진출하지 못하고 베이징올림픽에서도 겨우 동메달에 그친 탓인지 내년 WBC에서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 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탬파베이 레이스 외야수 쟈니 곰스는 "마이클 펠프스가 수영에서 금메달을 휩쓰는 등 올림픽 직후 미국에 대한 자긍심 이 높아가고 있는 와중에 조국을 대표하는 야구 선수들도 보다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내년 WBC에서는 분명 달라진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스턴 레드삭스의 주장 제이슨 배리텍도 "솔직히 이번 올림픽 결과에 실망했다. 대표팀에서 뛰게 될 젊은 선수들은 항 상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며 보다 일찍 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스프링캠프가 일찍 시작되는 것을 환영했다.

16개국이 참가하는 제2회 WBC는 내년 3월5일부터 도쿄, 멕시코시티, 산 후안, 토론토 등 4곳에서 1차 지역 예선을 벌 인다. 2라운드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분산 개최되고 준결승전과 결승전은 3월 21일부터 LA 다저스의 홈구장 캘리포니아주 다저스타디움에서 치러진다.

한국대표팀은 2월20일께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소집돼 열흘 간 팀 훈련을 치른 뒤 도쿄로 이동한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2회 대회에서는 초대 대회 때보다 4천만 달러가 늘어난 1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







핫뉴스 →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다섯식구 평균키 203cm...美 가족 '최장신' 기네스북 등재

'왕좌의 게임' 출연배우,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범...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 또...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cany990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ieb	보는 카카	·오토 o	kiebo
----------------	-------	-------	-------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09/24 08:47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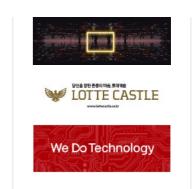
현장 영상 →

▶ 01:18 ▶ 02:22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니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뜴 결국 우크라에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2년1개월만 거리두기 전면해제...다음주부터 인원 ·시간 제한없다

尹당선인 "경제 복합위기 징후 뚜렷...물가상승 장기화 대비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 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 157 찰에 고발

2 '유퀴즈' 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3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 61 대병원 자원봉사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 41 힐예정"

뭐하고 놀까? ## 😛 →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사베포

테미별뉴스 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시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톱뉴스사설 이시각헤드라인 **광고** KTX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 앱
 보다시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ح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모맥스 한민족센터 K컬쳐기확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90.1229 | 발행일자 199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 성기홍 [편집인] 조채희

Yonhapnev